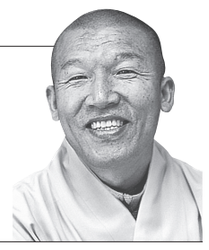
현불 논단

아이들과 공부하기



주경 스님
수덕사/동국대감사

반철산행 동행한 불자님 부탁
절 오는 것만도 기특한 아이들
자녀들 위한 영어공부를 맡겨

교과서 아닌 자습서 위주 공부
굳이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의문

변별력 가릴 문제를 위한 문제
다른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유
이제는 글쓰기 공부로 이어져

반철산행을 함께 했던 불자님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영어공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흔쾌히 좋다고 답했더니 고1 누나와 중1 동생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절에 왔다.

출가 전에 동생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 절에 와서는 동자들이나 신도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특히 여행 중에 혼자 공부하여 영어 실력을 쌓은 경험이 있고, 신문이며 잡지 등에 20여 년 글을 쓰다 보니 책을 몇 권 내게 된 까닭에 아이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거나 글쓰기 지도를 하는 일은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곤 했다. 산행 중에 아이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마음에 담았다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서 함께 절에 온 것이었다.

부모님은 법당에 법회를 가고 아이들과 마주 앉았다. 아이들을 보며 신통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절에 오는 것만 해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스님과 공부하러 가자는 말에 마음을 낸 것이 무척이나 예쁘고 착하게 생각되었다. 차 한 잔 나누며 고등학생이 가져온 영어책을 살펴보았다.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습서를 가져왔다. 살펴보니 우리 국민학교 시절 전과처럼 단어와 해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서 정말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진 책이었다. 고등학생에게 왜? 이런 자습서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이후로는 사전과 자료들을 찾아가며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고등학생마저도 자습서에 의존하여 공부하고 있다니!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습서도 효용성이 있으니 만들어진 것일 테지만.

편안한 페이지를 펴서 함께 읽어가며 공부를 시작했다. 더듬더듬 읽어가며 우선 끊어 읽는 포인트를 찾아갔다. 동사에서 끊고, 전치사와 접속사에서 끊고, 그렇게 두 단어 세 단어 또는 구와 절이 한 단어처럼 느껴지게 반복해서 읽고. 점점 한 문장이 단지 서너 개의 단어처럼 느껴지게 읽는 연습을 하며 읽어갔다. 처음에 단어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다는 말에 의아해하던 아이가 읽는 연습을 하며 그 의미를 이해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3주간 영어공부를 함께 했다. 중1 동생은 그냥 누나의 공부를 옆에서 보고 듣기만 하면서도 꾸준히 자리를 함께 했다. 약속한 마지막 시간인 넷째 주에는 아이가 국어공부를 하자고 했다. 가져온 책을 꺼내는데 역시 문제집이었다. 왜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물으니 교과서는 쉽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은 문제집을 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몇 개 표시해둔 틀린 문제들을 읽어보았다. 나에게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문제 해설에는 제시된 답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높아서 정답을 가리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친절한(?) 안내문도 써놓았다. 몇 개의 문제를 읽어보다가 책을 덮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지 말아라"고 권했다. 또 같은 말을 한다. "다른 아이들도 다 이 책으로 공부해요." 그래도 그 책으로 공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 문제들은 내게 마치 다섯 마리의 얼룩 강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룩무늬가 제일 동그랗게 보이는 강아지를 찾으라는 것처럼 황당하게 느껴졌다.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심히 답답했다.

4주가 금방 지나갔고, 아이들이 글쓰기 공부를 같이 해보겠다고 한다. 잠시 쉬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주 쉬고 다시 보기로 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참 새롭고 좋다. 그리고 무척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정리에서 얻은 순환의 힘

지금 우리 집은 난장판이다. 아들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벌써 몇 박스가 지인의 집으로 갔지만 여전히 책들은 넘쳐난다. 옷 정리도 돌입했다. 아들의 옷은 거의 대부분이 아는 형들에게 받아 입었는데 그 옷들은 여전히 새 옷처럼 말끔하다. 그 옷들은 또 아는 동생에게로 다시 전해졌다.

다음은 장난감 차례. 아들의 장난감은 많기도 많다. 정리한다고 꺼내 놓으니 아들은 먼지를 다 털어내기도 전에 가지고 노는 재미에 쏙 빠져 버린다. 추억의 물건이라며 버리기를 거부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 아들을 보면서 어디에 있는 줄 몰랐던 물건들은 애초에 없는 것과 똑같음을 알게 된다. 아직 정리 시작 단계임에도 우리 집의 물건들이 구석에 처박힌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계속 확인하자니 참 씁쓸하다.

늘 우스개로 해왔던 말,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어. 다만 어디 있는 줄 모를 뿐"에서 이제는 "이게 여기 있었군"을 연발하는 중이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쏟아져 나와 거실을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에 놀라며 내 삶의 '과잉'을 생각하게 된다.

한동안 집안이 지저분하더라도 집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고 닦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로소 반짝반짝 윤을 내며 깨어나는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도 크거니와, 그 물건들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또 이제는 어떻게 제 갈 길을 찾아 줄 것인지를 고민하며 내 지난 시간들과 그 물건이 품게 될 미래까지 함께 살아보는 일은 꽤나 흥미롭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시간들이 '버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물건의 끝없는 '여행'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 것과 남의 것의 분별이 사라지고 어느새 돌고 돌아 내 것이 남의 것이 되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들과 공간들이 '버리기'라는 단어에 깃들길 바란다.

우리 집엔 버려진 것을 주워 사용하는 재활용품이 많다. 어느 때인가 '남의 것'이었던 소파, 서랍장, 책꽂이 등이 이제는 또 잠시 '내 것'이 되어 있다. 한때 버려졌으나 나와 인연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들이 있듯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들 역시 그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 제 역할을 다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건이 떠나간 자리에 생긴 우리 집의 공간은 새로운 인연들,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버리기를 시작하고 나서야 나는 오히려 '풍족'을 절감한다. 쓰지도 않으면서 그 물건에 얽매여 있던 내 마음을 본다. 물건을 갖지 않은 무소유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는 마음을 물건을 버리고 나누며 연습하는 중이다. 어디 물건뿐이랴. 내게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물건들처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 느낌 · 생각들도 잠시 내게 머물다 사라지는 것일 뿐, 진정한 내 것은 아님을 알아차려야겠다.

물건을 비워내면서, 끝없는 소비를 불러오는 욕심을 같이 비워낼 것이다. 물건이 비워진 자리에 생긴 정갈한 공간처럼 아집을 비워낸 자리에 원만하고 밝은 기운을 채워 살고 싶다. 지구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집과 그 공간 안의 나를 말끔히 비워낸다면 지구도 그만큼 정갈하고 밝은 기운을 품은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說

불교평론 20돌, 지성불교 확산 계기

1999년 겨울 불교의 지성화를 기치로 한 불교계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불교평론〉의 발간이었다. 불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냉철한 지성으로 바라보고자 출발한 〈불교평론〉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불교평론은 창간 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무산 스님과 불자대중의 원력으로 갖은 어려움에도 그 맥을 이어왔다.

수익을 내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고, 발간 비용을 부담하는 것조차 힘든 불교계 계간지 시장에서 꿋꿋이 책을 펴냈다. 다양한 주제와 불교 안팎의 학자들의 목소리를 묶는 역할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온 건 물론이다. 불교계서 다루기 힘든 '성윤리' '종교폭력' 등 민감한 주제까지 서슴없이 다루며 지성불교의 횃불 역할을 자임했다.

그동안 불교계는 기복불교, 치마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안주해 왔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교평론〉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때가 됐다.

불교평론이 20주년을 맞아 '탈종교화'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나온 진단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시대의 흐름은 종교를 하나의 기호상품화 하고 있다. 맹목적인 믿음에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에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종교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불교평론〉이 이끌어온 지성불교의 담론을 확산해야 한다. 부처님은 전법행을 통해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그 해법을 풀어냈다. 그 가운데 남은 가르침이 바로 불교가 됐다. 불교계가 〈불교평론〉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성불교의 불을 당기길 기대한다.

BBS사장 공모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달여 동안 후임 사장 문제로 표류하던 BBS불교방송 사장 선임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재)대한불교진흥원은 8월 23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재단사무실서 이사회를 열고, 복수 추천된 선상신 · 최윤희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후보는 공모를 거쳐 추천키로 했다. 아울러 공모는 본인뿐만 아니라 외부 추천인의 추천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보다 많은 인재들이 불교방송 사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의 문호를 넓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BBS불교방송 사장 선임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모가 많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공모를 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의 독단적 전횡으로 불교방송 사장 차기 후보 추천 과정서 별도의 경영계획서도 받지 않고, 사장 후보 선임위원회도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절차상 공정성을 이유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심지어는 '밀실 야합'이라는 말까지 돌며 따가운 시선들이 많았다. 그 과정을 지켜본 BBS불교방송 재단이사회도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투명성 있게 사장을 공개 채용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어떤 경우라도 원칙을 어겨 가면서 좋은 결실을 본 것은 거의 없다. 물론 진흥원 정관에 공채를 하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BBS불교방송의 사장은 우리 불교계에서 중책인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참된 경영자를 뽑기 위해 대한불교진흥원과 BBS불교방송 재단이사회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눈과 귀를 크게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탈종공고
• 사찰명 : 칠구정사
• 주 소 : 경남 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 3150-29
• 주 지 : 영공 (속명 : 강한유)
• 승 번 : 2557-133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신화불사
매물안내
법당 3포 27평(서울) 3,000만원
종각 육모정 8자칸(서울) 1,200만원
사주문 5포. 전면 11자. 측면 10자(서울) 800만원
요사채 ㄱ자. 33평(서울) 3,300만원
대중간 45평(서울) 4,500만원
한옥 ㄱ자. 33평. 재부(서울) 1억 2천(신재)
사찰 문화재 보유 / 1120평(경기) 35억
사찰 문화재 보유 / 1200평(서울) 80억
☎ 010-6545-2020